

■ 대구일보 2011년 2월 14일(월)



대구지방변호사회 김중기 회장(왼쪽)은 지난 11일 대구쪽방 상담소를 방문해 회원들이 마련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한 데 이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(사)나눔과 기쁨에 각각 성금 200만원과 145만원을 기탁했다.